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일자리 공고 숫자 최저치로 하락...2021년 1월 이래
- Bloomberg: 미 무역적자 2년 만에 최대폭 증가...7백88억불

[미국 금융]

- CNN Business: 미증권거래위원회, 전자 기록 관리 부실로 6개 주요 신용 등급사에 벌금
- WSJ: 미 경제 둔화 우려로 어제 주식 시장 대규모 매도세

[미국 생활]

- WSJ: 미 이민 유입이 노동력의 지형을 바꾼다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계속 하락세

[물류]

- Bloomberg: 파업 우려...미국 항만 노사 간 회담 시작

[원유]

- Bloomberg: 원유 수요 9개월 만에 최저치...OPEC+ 공급 딜레마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 Business: 코스트코, 7년 만에 멤버십 가격 인상
- CNN Business: 보잉, 근로자 3만2천명 파업 위기
- WSJ: 알리바바, 텐센트의 결제 서비스 제공
- Bloomberg: 달러 트리, 소비 둔화 전망에 주가 하락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Decline to Lowest Level Since January 2021

미 일자리 공고 숫자 최저치로 하락...2021년 1월 이래

- 7월 미 일자리 공고 숫자가 지난 2021년 초 이래 가장 크게 하락했고 해고도 증가했다. 구인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것이다.
- 일자리 공고 숫자가 6월에는 하향 조정치로 7백91만개였는데, 7월에는 7백67만개로 줄었다고 수요일 연방노동통계국의 일자리 수치(JOLTS)는 밝혔다.

- 이 같은 일자리 공고 숫자 감소는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최근 지표와 맞물려 연방 관리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일자리 성장이 줄고 있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실업자들의 일자리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 결국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준 관리들은 노동시장의 둔화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2주 후인 다음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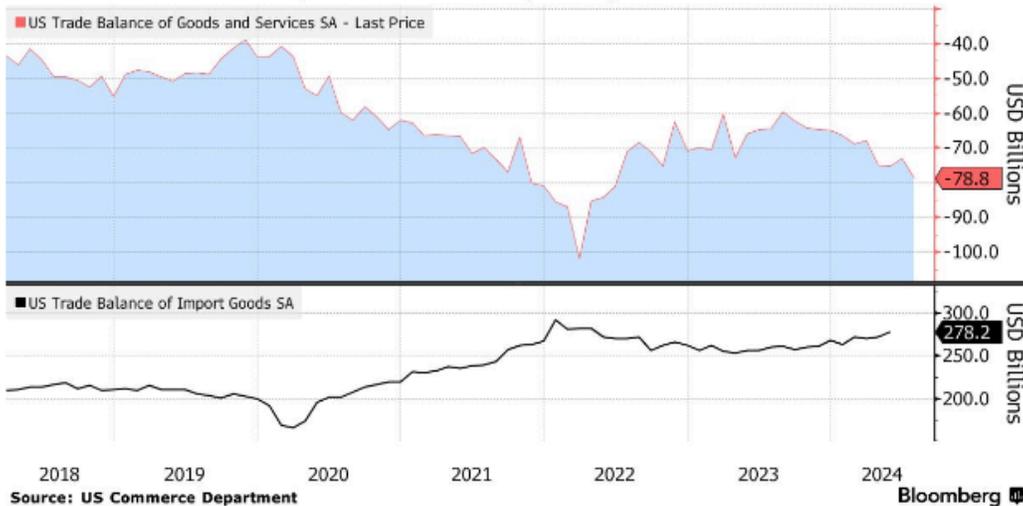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to \$78.8 Billion, Largest in Two Years

미 무역적자 2년 만에 최대폭 증가...7백88억불

- 7월 미 무역적자가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상품 수입이 급등한 데다 이달 말에 동부 및 서부 항만 노조 파업 가능성으로 미리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 때문이다.
-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는 6월에 비해 7.9% 늘어난 7백88억불이라고 오늘 수요일 연방 상무부는 밝혔다. 이는 전망치와 같은 수치이다.
- 상품과 서비스 수입 규모는 2.1% 증가해 지난 2022년 3월 이래 가장 커졌다. 반면에 수출은 0.5% 늘었다.

US Posts Widest Trade Gap Since 2022

Value of merchandise imports rises to two-year high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CNNBusiness: SEC fines six major credit rating agencies over failure to keep electronic recor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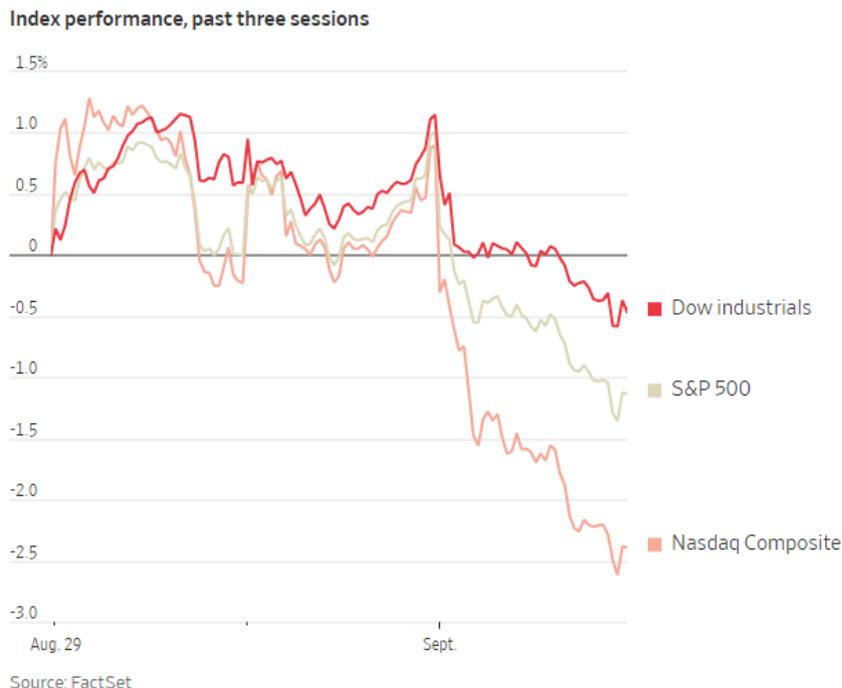
미증권거래위원회, 전자 기록 관리 부실로 6개 주요 신용등급사에 벌금

- 미증권거래위원회는 6개 주요 신용등급기관이 전자 통신 자료 보관에 중대한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총 4천9백만불의 벌금을 물렸다.
- 무디투자사와 S&P글로벌 평가사는 각각 2천만불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 피치사는 8백만불, A.M. Best Rating Services는 1백만불 등이다.
- 예를 들어 직원들이 개인 기기의 문자 메시지와 WhatsApp을 통해 신용 평가 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데, 이의 보관에 부실해 연방 보안법 기록보관 유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WSJ: Fears of Economic Slowdown Spark Stock-Market Selloff 미 경제 둔화 우려로 어제 주식 시장 대규모 매도세

- 경제 둔화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어제 화요일 미 증시는 크게 하락했다. 마치 바로 한 달 전에 글로벌 금융 시장을 흔든 대규모 매도세를 연상시켰다는 것이다.
- 주요 증시 지수는 8월 5일 이래 최악의 날을 보였다. S&P500은 2.1% 하락했고, 나스닥은 3.3%, 다우존스는 1.5% 손실을 입었다.
- 투자자들은 월요일 노동절 휴일 후에 발표된 제조업 분야 활동 지표가 계속 둔화하는 소식에 미 경제 건전성에 우려를 보였다.
- 10년 선물 미 국채 금리는 지난주 금요일 3.910%에서 3.843%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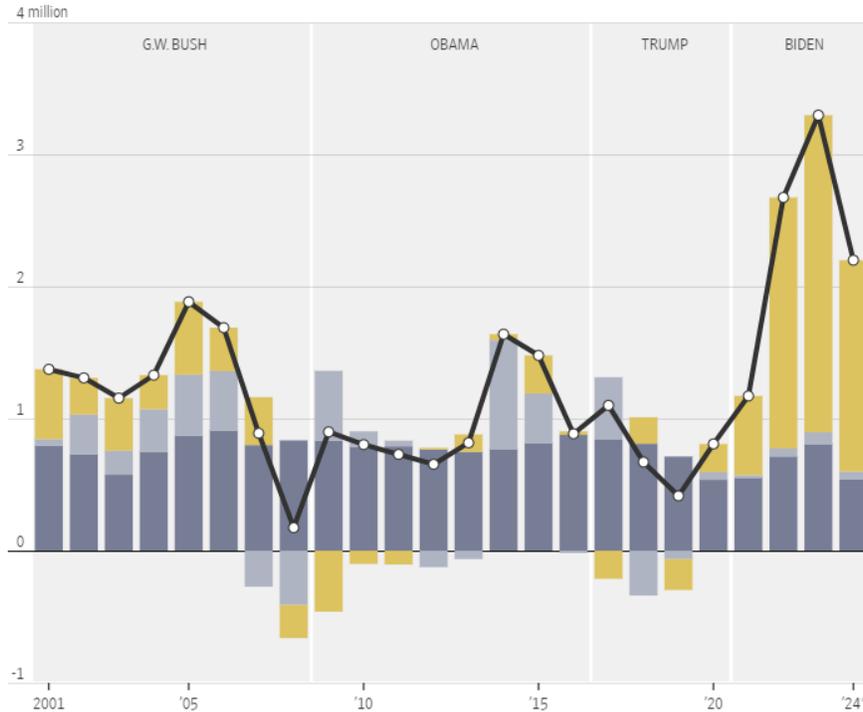
WSJ 기사

[미국 생활]

WSJ: How Immigration Remade the U.S. Labor Force
미 이민 유입이 노동력의 지형을 바꾼다

- 미국은 몇세대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이민자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개인의 안전과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
- 이민자들 넘쳐나면서 노동력의 구성이 변경되는데, 향후 수십년간 미 경제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말 이래 미국을 떠난 사람 숫자를 제외하고 합법적이건 불법적이건 미국 유입자는 9백만명이 넘는다고 의회 예산실은 추정하고 있다.
- 이 같은 유입 숫자는 지난 10년간의 유입 숫자와 맞먹으며 인구가 현재 매년 1.2%씩 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지난 1990년대 이래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렇지 않았다면 미국 인구는 출생률 저조 탓에 매년 0.2% 성장에 그치고 2040년쯤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 한가지 특징은 최근 이민자들은 연령은 젊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보다 노동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것이다. 2020년 이래 유입된 이들 중 78%가 16세에서 64세 사이다. 이 연령대의 미국인은 60%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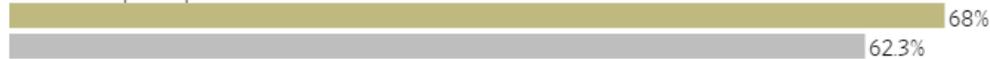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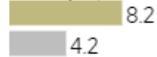
Net immigration to the U.S.



*Figures for 2024 are an estimate of flows from January through August, based on the CBO's projection.
Sourc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Employment status

■ Recent immigrants ■ Native-born America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Unemployment rate**

Note: Includes those immigrants who have arrived since 2020.

Source: Census Bureau

WSJ 기사

[주택]**Bloomberg: US Mortgage Rates Continue to Ease on Expectations of Fed Move****미 모기지율, 연준 금리 인하 기대로 계속 하락세**

-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율이 작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하락해 주택 구매 희망자들을 위한 모기지 신청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 지난 8월 30일에 끝난 주의 30년 모기지율이 6.43%로 약간 하락했다고 모기지은행협회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협회의 주택 구입 신청 지수도 3.3% 상승한 136.1로 늘어났다.
- 모기지율은 연준이 향후 2주 후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금리 비용과 주택 가격은 높아 현재 주택 시장에서 주택 구매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모기지은행협회의 모기지 신청 지수는 주택 구입과 채용자를 함께 측정하는 지수인데, 1.6% 상승한 230.5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물류]**Bloomberg: US Port Talks Kick Off in Bid to Avoid Economy-Disrupting Strike****파업 우려... 미국 항만 노사 간 회담 시작**

- 동부부터 걸프 연안까지의 항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조가 항만 고용주들과 파업을 막기 위한 임금 회담을 뉴저지에서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가장 바쁜 10개 항만 가운데 6곳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계약은 지난 6월 국제부두노동자협회(ILA:International Longshoremen's

Association)과 선사/터미널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USMX의 임금 협상 중단 이후 멈춰버린 상태였다.

- 파업이 발생하면 약 4만5천명의 근로자와 36개의 항구가 영향을 받는다. 전미소매업연맹(National Retail Federation) 회장 Matthey Shay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파업 같은 혼란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노조는 약 8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여름 서부 항만 임금 인상률보다 32% 넘게 높은 수치다. ILA 회장 Harold Daggett는 마감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미국 항구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외국 해운사와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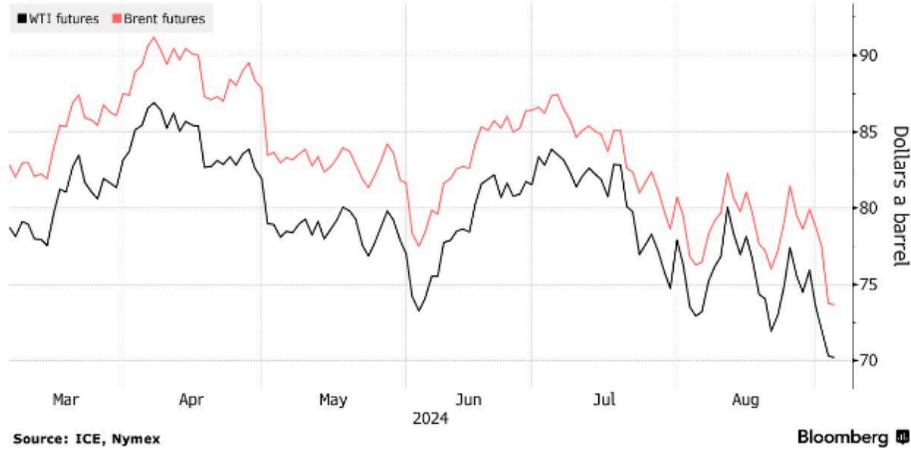
Bloomberg: Oil Trades Near Nine-Month Low on Demand, OPEC+ Supply Dilemma

원유 수요 9개월 만에 최저치...OPEC+ 공급 딜레마

- OPEC+가 수요 우려로 흔들리는 시장에 공급을 추가할지 고민하면서 원유가는 9개월 만에 최저치에 다가섰다. 브렌트유 선물은 화요일 5% 가까이 하락한 배럴당 73달러에 거래됐다. 서부 텍스사산 중질유도 약 70달러에서 거래됐다.
- 유가 급락으로 OPEC+는 원유 생산 재개 계획을 미루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OPEC+는 유가 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켜 10월에 하루 18만 배럴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 취리히 소재 UBS 그룹 AG의 분석가 Giovanni Staunovo는 “수요 우려와 OPEC+와 리비아의 추가 공급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시장의 약세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은 현재 OPEC+의 추가 공급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Oil Pressured by OPEC+ Supply Outlook as Algos Sell

Algorithmic traders had turned increasingly bearish on Tuesday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 Business: Costco's first membership price hike in 7 years just went into effect

코스트코, 7년 만에 멤버십 가격 인상

- 코스트코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멤버십 비용을 인상했다. 9월 1일부터 골드스타, 비즈니스, 비즈니스 애드온, 3가지 플랜의 멤버십 요금이 연간 5달러 인상한 65달러가 될 예정이다. 코스트코 프리미엄 Executive 멤버십도 연간 10달러 오른 130달러가 된다.
- 연간 멤버십 비용은 코스트코의 가장 큰 수익 분야 가운데 하나다. 작년에 코스트코는 멤버십 비용으로 46억 달러 수익을 올렸다. 이는 2022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다.
- 이번 인상은 비가입자가 다른 고객 멤버십에 무임승차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런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코스트코는 엄격한 정책을 시행하고 매장 입장 시 카드 스캔을 요구하고 있다.

CNN Business 기사

CNNBusiness: Boeing's next big problem could be a strike by 32,000 workers

보잉, 근로자 3만2천명 파업 위기

- 이달 말 보잉 근로자 3만2천명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보잉과 노조인 국제기계공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의 계약은 9월 12일 만료된다.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워싱턴 주에서 비행기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할 예정이다.

- IAM 751지구 회장 John Holden은 비노조 사업장에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휴가 개선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보잉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잉은 지난 5년간 333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회사는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여전히 미국 경제에 주요 기업이며, 항공업계에 상용 제트기를 공급하는 단 두 개의 업체 중 하나이다. 보잉의 파업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잉은 3만2천명의 노조원 외에도 15만명의 미국 직원이 있으며, 50개 주에 걸쳐 9천9백개 이상의 공급업체에 160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보잉의 경제적 영향은 790억 달러로 예상된다.

CNN Business 기사

WSJ: Alibaba to Offer Payment Services From Rival Tencent 알리바바, 텐센트의 결제 서비스 제공

- 알리바바 그룹이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경쟁사인 텐센트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알리바바는 국내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와 티몰 고객들이 텐센트의 위챗 페이로 결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리바바는 위챗 페이 허용이 소도시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챗 사용자 수는 13억7천만 명이다. 타오바오와 티몰 관계자는 동종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기존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중심으로 서로의 서비스가 차단되었었지만, 2021년 중국 규제 당국이 인터넷 기업들에게 이러한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개방하라고 명령했다. 지난주 중국 반독점 감시 기관이 알리바바가 3년 전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한 독점 관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Dollar Tree Cuts Outlook on Muted Consumer Spending 달러 트리, 소비 둔화 전망에 주가 하락

- 달러 트리는 고소득 소비자들이 신중한 지출 태도를 유지하자 연간 전망치를 낮췄다. 이전에는 한 자릿수 중반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한 것과 달리, 지금은 한 자릿수 초반의 매출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월스트리트 분석가 예상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다.
- 달러 트리의 핵심 고객들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압박을 받고 있다. 분기 동안 방문 횟수는 증가했지만, 고객당 지출액은 줄어들었다. 또한 월마트, Aldi Inc.와 같은 다른 소매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 달러 트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7달러짜리 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EO Rick Dreiling은 다양한 가

격대를 제공하는 1,600개 매장에서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달러 트리는 올해 초 수익 개선을 위해 약 1,000개의 실적이 저조한 매장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9월 첫날 '경기 둔화 우려 재점화' 美 증시 급락...나스닥 3.3%↓
S&P 2.12%·다우지수 1.51% 각각 하락..."제조업생산자지수 매도세 주도"
AI 대장주 엔비디아 9.53%↓...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7.75% ↓마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되살아나며 9월 첫 거래일인 3일(현지시간) 미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7.33포인트(3.26%) 내린 17,136.3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19.47포인트(2.12%) 하락한 5,528.93,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626.15포인트(1.51%) 내린 40,936.93에 마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